영산회상이 장엄하게 펼쳐졌도다

〈靈山會上〉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竹檻無塵麥塢淸(죽함무진맥오청)
東山華月半窓明(동산화월반창명)
香銷寶鴨微風起(향소보압미풍기)
露滴松枝鶴夢驚(로적송지학몽경)

대울타리 보리밭 티끌 없이 맑고
동산 둥근 달 반창(半窓)을 밝히면
향불 잦아드는 향로엔 미풍이 일고
소나무 가지 이슬방울에 학이 꿈을 깬다

하안거를 결제하는 수선대중(修禪大衆)들이여!

옛 부처님 법대로 안거를 하게 되었도다.

대중이 청정하고 단월들이 정성스러우며 이사가 화합하여 정진하니 영산회상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었도다.

산문 출입을 삼가며 화두참선에 전념함은 본래 구족한 마음자리를 분명하게 보기 위함이로다. 이 일을 원만히 성취해야만 시주의 은혜를 갚고 중생을 위한 대비원력을 실천할 수 있게 되리라.

참선대중은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해야 할 것이요, 외호대중은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해야 할 것이며, 신심 있는 단월들은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성을 모아야 하리라.

細雨夜飛山(세우야비산)
百花開爛熳(백화개란만)
好風吹遠林(호풍취원림)
滿壑幽香散(만학유향산)

가랑비 간밤에 온 산에 내려
온갖 꽃 눈부시게 피었네
잔잔한 바람 먼 숲에서 불어오니
골짜기 가득 그윽한 향기 흩어지네

생사해탈 사명으로 정진해야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直截根源佛所印(직절근원불소인)
嫡葉尋枝我不能(적엽심지아불능)
곧바로 근원을 끊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니, 나뭇잎을 따고 가지를 찾는 일을 나는 하지 않노라.

예전 시골 살 적에는 웬만큼 부자가 아니고서는 방학 때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산에 나무가 울창하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땔감으로 나무를 많이 쓰다 보니 동네 근처는 이미 민둥산이 되어 나무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땔나무를 하기 위해 20리 길도 마다치 않고 먼 산까지 가서 나무를 해 지고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산에는 아까시나무가 있었습니다. 아까시나무는 아무리 베어내도 이듬해면 언제 베었느냐는 듯 다시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나무가 귀하던 시절이라 그 가시 돋친 아카시아라도 땔감으로 쓰려고 베다 보면, 손바닥 여기저기 가시에 찔려 피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치 아까시나무 가지를 치듯 해서는 안 됩니다. 번뇌 망상을 아카시아 가지 자르듯 하나하나 끊어내려고만 하면 공부에 진척이 없고 세월만 보내게 됩니다. 아카시아를 뿌리째 뽑아내야 다시는 자라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의단을 한 점 의심 없이 확실하게 타파해야만 어떤 경계에도 물들지 않게 됩니다.

화두를 들 때는 마치 코뿔소가 앞만 보고 달려가듯 일념으로 정진하여, 이번 결제 기간에 모두가 깨달음을 얻은 대장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중략〉

마음을 깨닫고자 이번 결제에 임하는 대중 스님들께서는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소임을 살면서도 오직 마음을 깨달아 생사해탈을 하겠다는 간절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진에 몰두해야 합니다.

摩尼珠 人不識(마니주 인불식)
如來藏裏 親收得(여래장리 친수득)
지극한 보배 구슬을 사람들이 알지 못함이여, 여래장 속에서 친히 거두어 가졌도다.

최상의 보물은 바로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 마음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는 마니보주(摩尼寶珠)와 같습니다.

마음을 깨달아 자성을 요달하면, 마치 연꽃처럼 세상에 머물되 때 묻지 않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결제에 임하는 대중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하여, 모두가 자성을 밝혀 성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대사 요달하니 걸림 또한 없네

〈了達〉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법상에 올라 묵연히 앉아 있다가 주장자를 들어 세 번 치고 또 들어 보이고 묻기를] '아시겠습니까?'

參頭六臂三目人
神頭鬼面足火輪
鐵眼銅睛透過光
燈籠露柱笑嘻嘻
머리는 셋이고 팔은 여섯, 눈이 셋 달린 사람이요.
신의 머리에 귀신 얼굴, 발밑에는 불수레를 굴리고.
쇠눈과 노란 눈동자가 일체를 투과하여 빛나니.
등롱과 노주도 웃으며 기뻐함이로다.

금일 대중께서는 도리어 아시겠습니까?

만약 알지 못한다면 또 고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르리다.

참선하는 납자 두 스님이 雪峰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설봉 스님께서 문을 열고 나오셔서 두 스님을 보고 "무엇인고?"하고 말씀하시니, 두 스님도 반대로 "무엇인고?"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설봉 스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숙이고 암자의 방으로 돌아 들어 가셨습니다.

두 스님이 설봉 스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니, 설봉 스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는가?"하고 물으셨습니다. 두 스님이 "네, 湖南지방으로 가볼까 합니다."하고 답하니, 설봉 스님께서 "지난날 함께 공부 정진하면서 행각을 한 도반 巖頭 스님에게 서신을 한 통 써 줄테니 좀 전해주게." 하시면서 편지를 부탁하셨습니다.

두 스님은 편지를 지니고 호남지방의 암두 스님 처소에 가서 인사를 올리고 편지를 전해드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암두 스님이 두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네, 설봉 스님 처소에서 왔습니다." "설봉이 무슨 말을 하던가?" "네, 설봉 스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인고?'하고 물어셨습니다. 그때 저희도 반대로 '무엇인고?'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설봉 스님이 아무 말 없이 암자로 돌아갔습니다."

암두 스님이 이를 듣고 탄식하며 말씀하시길. "내가 당초에 설봉에게 末後句를 일러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내가 만약 그에게 末後句를 일러주었다면 天下人이 설봉스님을 어찌하지 못했을 것이다."

두 스님이 하안거 말엽에 앞의 대화에서 末後句가 의심스럽고 알고 싶다고 암두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암두 스님이 말씀하시길. "왜 진작 묻지 않았는가?" "감히 쉽게 여쭈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末後句를 답해주겠노라. 雪峰雖與我同條生 不與我同條死니라. '설봉이 비록 나와 더불어 한가지로 낳지만, 나와 더불어 한가지로 죽지는 않느니라.' 요컨대 말후구를 알고 싶은가? 다만 이것이니라."

佛鑑懃 선사가 末後句에 대해 偈頌을 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末後句爲君說 踏著秤鎚硬似鐵
寒則普天寒 熱則普天熱 若是達磨兒孫 各各自知時節爲君說
九尾烏龜 莫當鼈山石鼈

그대를 위해 말후구를 말하리라.
저울추를 밟아 착해보니 굳기가 쇠와 같네.
날씨가 추운즉 하늘 전체가 춥고, 더운즉 하늘 전체가 덥다.
만약 달마 스님의 자손이라면 각각 스스로 시절을 알 것이니 그대를 위해 말후구를 말하리라.
꼬리가 아홉 개 달린 검은 거북이가 자라산을 당하여 돌자라라고 말하지 말라.

금일 대중께서 암두 스님의 末後句의 意旨를 아시겠습니까?

만약 아신다면 암두 스님과 다르지 않는 눈 밝은 선지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금일 산승이 末後句의 意旨를 한 말씀 붙여 보겠습니다.

良久曰, 錦山純山蔘出 百貨店多種物
양구해 가로되, 금산에는 순수한 산삼만 나오고, 백화점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물건이 진열되어 있도다.

아시겠습니까?

금일 결제 대중께서 틈이 없이 화두를 참구하여 신속히 話頭를 타파하셔서 一大事를 了達하시길 바랍니다.

화두를 깊이 의심하여 한뭉치가 되면 마치 쇠뭉치를 씹어 즙을 내는 것과 같고, 평평한 땅에 배가 행하는 것과 같으며, 허공 속에 말이 달아나고, 구년 동안 면벽한 사람이 입이 있어도 도리어 벙어리처럼 참구함이라.

이와 같아야 死中得活이요, 轉身하야 了事人이라 할 수 있습니다.

且得怨家解脫
了達無事無礙
天上人間能幾人
無意凉人人自凉

또한 원수의 집에서 해탈을 얻고.
일대사를 요달하여 일이 없으니 걸림 또한 없네.
천상인간 가운데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뜻이 없는 시원한 사람은 사람 스스로 시원함이로다.

喝

[拄杖三下 下座하다.]

5월 31일(음력 4월 15일) 전국 총림과 선원에서 병오년 하안거 결제 법회를 봉행합니다. 조계총림과 덕숭총림은 결제 법회에서 법어를 발표합니다. 법어 전문은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